

# 각 분야별 환경포장재 개발 경향 뚜렷

## 식가공분야 출품 다수, 신기술정보 부재

우리 생각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인지...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현재를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비해 상당히 열등한 것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질서의식도, 일류의식도 없는 국민이고 일본이나 선진국은 잘 하는 것도 많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매체들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되는 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린 정말 아직도 멀었는가보다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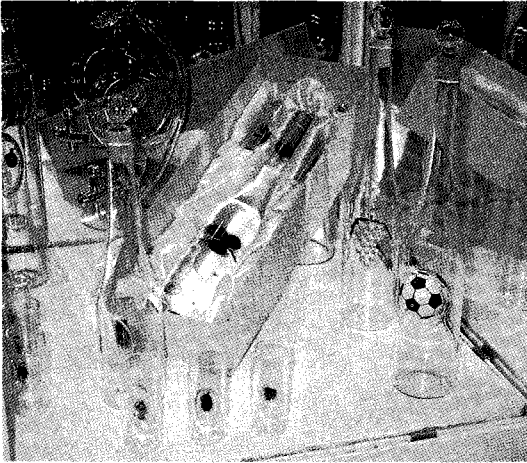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면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포장전시회인 INTER PACK 99에 다녀와 가장 크게 남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세계 수준으로 가기에 아직도 멀고 긴 길이 남아있지만, 작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자신감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런 전시회를 통해 우리 포장산업의 눈높이를 생각해 보며 그 길의 길이를 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관한 모든 이들에게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은 의미와 동시에 세계 포장산업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맥을 짚어볼 기회가 된 INTER PACK 99는 지난 달 6일부터 12일까지 전시장 규모만 138,000㎡에 이르는 독일의 MESSE DUSSELDORF GMBH에서 2천3백



▲ 세계 각국의 참관단으로 성황을 이룬 INTER PACK 99



▲ 다양한 특징을 가진 외관으로 전시회의 화려함을 더한 유리용기

4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1관부터 2관까지는 주로 식품가공기계가 선보였고, 3관부터 6관까지는 포장재를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7관에서 15관까지는 각종 기계류가 선보였다.

이번 INTER PACK 99에서도 가장 주된 흐름을 주도한 것은 역시 환경포장이었는데, 차별화된 점이라면 골판지 등 제지업체들의 참여가 적고 분해성 필름이나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 호평을 받았다는 점이다.

제지류의 경우 다양한 외관의 지합과 완충재가 눈에 띄었는데 완충재는 기존에 사용되던 펄프몰드의 개념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계로 종이 자체의 완충력을 보완해 주어 편리성을 더한 제품이 선보였다.

골판지의 경우 관건인 강도를 보완한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출품수가 많지 않았다.

이번 INTER PACK 99에서 환경친화적 포장재의 흐름을 주도한 분해성 필름이나 시트의 경우 그동안 환경에 대응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 다양한 외관의 캔용기

통해 이룬 결과로 플라스틱이 반환경적인 포장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진 분해성 필름과 시트류의 적극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친화적 포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 보았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료포장재로 생산되고 있는 유리용기는 매우 다양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리용기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색상을 중심으로 투명성을 이용해 용기 내부에 장식을 함으로써 재질이 가진 특성을 한껏 살려주었으며 경량화 기술도 매우 진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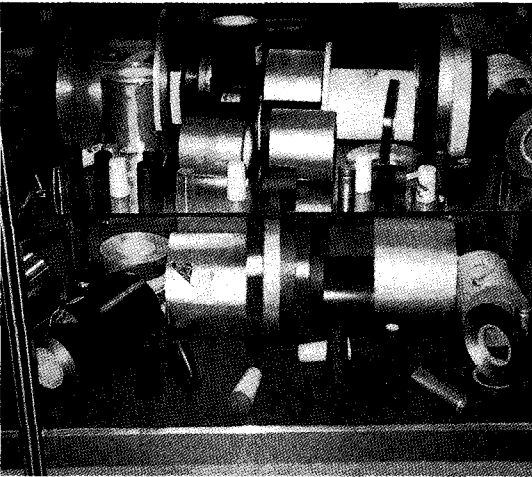
얼마 전 국내에서 곡선형의 익스펜디드 캔이 선보여 신선함을 주었는데 INTER PACK 99에서 선보인 캔용기들의 경우 초콜릿 등 제과류는 상자형으로 다양한 외관을 선보였으며 스틸캔을 중심으로 선보인 음료용 캔들은 캔 외부에



▲ PE 단일재질로 선보인 농산물 포장



▲ 유럽에서 상용화된 PET 맥주용기



▲ 인체의 유해한 납성분을 없앤 알루미늄 라벨

엠보싱 처리를 하거나 다양한 굴곡을 주어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통기성과 유통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농산물 포장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나 골판지 박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INTERPACK 99에서는 PE 단일재질로 정면에는 브랜드네임과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옆면에는 그물 형태의 포장을 하므로써 통기성을 보완한 제품

이 선보였다.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농산물 포장 분야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반가웠다.

알루미늄 포장재의 경우에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지적에 따라 두 겹으로 만들어진 주류 라벨이 선보였는데, 경량화되고 연결감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콜릿 소포장으로 많이 선보인 알루미늄박 포장재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정밀함, 빛에 반사되는 재질의 특징이 더해져 화려하게 관람객을 끌기도 했다. 또한 알루미늄 도시락 용기에 필름을 깔끔하게 덮는 기술이 선보이기도 했는데 기계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락이라는 제품의 특징을 살린 아이디어 제품이었다.

플라스틱 용기류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플라스틱 맥주병이었는데 유럽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으로 맥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볍다는 장점과 연결감을 가진 포장재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기계류의 경우 7관부터 12관까지는 작은 규모의 기계들이 전시되어 아 기자기한 멋을 주었으며 13관부터 15관까지는 큰 기계류가 전시됐다.

이번 INTER PACK 99는 전반적으로 식가공 분야의 출품물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기계류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로 수축포장기와 오버랩핑 포장기가 주를 이루었고, 인쇄기나 라미네이팅 기 등 관심을 가질만한 기계들은 그 수가 거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국내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물류분야의 경우 유럽의 물류포장을 엿볼 수 있었는데, 기능성·효율성을 주목적으로 한 제품과 기계들이 선진물류의 척도를 가늠케 했다.

또한 햄이나 빵류 등이 주를 이루는 서구 유럽의 식문화를 중심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국내 포장문화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INTER PACK 99는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신기술이 선보이지는 않았는데 대신 기존 아이템에 색다른 아이디어를 더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떠먹는 요구르트 제품의 덮개를 이중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 수저를 얹을 수 있게 한 편리한 포장이나, 손쉽게 열고 닫으며 사용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 등이 그것이다.

INTER PACK 99는 그 규모는 국내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전시회였다.

절반 이상을 이룬 기계관의 경우 시연회를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었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함께 토론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시회



▲ 물류의 효율성과 제품안전성을 고려한 파렛트

라기 보다는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망을 넓히는데 주력한 상업성이 뚜렷한 전시회였던 것 같다.

이번 INTER PACK 99는 내용물은 덜 차있으면서 겉포장만 그럴싸한 거대한 포장재를 본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체계적이고 참관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려는 전시문화를 느낀 것과 세계 포장의 전반적인 경향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히고, 그 속에서 국내 포장산업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큰 의미라 하겠다.

INTER PACK 99의 참관 중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참여가 부진했다는 점인데, 유럽 선진포장문화를 배우고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시회에 참여해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세계 포장의 수준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넓은 안목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K]

윤지은 기자